관찰자의 시선U

EXHIBITION

2011 / 05 / 09

ART IN CULTURE



김지원 <렌즈케이스> 2007

'관찰자의 시선'으로 일상과 현대사회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1부에서 일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들의 세계를 독특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풍경을 담아낸다. 작가가 스스로 타자가 됨으로써 반추한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각기 상이한 방향에서 9인의 작가가 카메라로 관찰한 일상적인 사물의 세계와 현대사회의 풍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참여작가 김수강 김은주 김지원 박소영 이주은 (이상 1부) 박현두 방병상 사타 오상택 (이상 2부)

02) 723- 7133